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김정현



미 증시, 장기금리 급등 속 반도체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약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8일(화) 미국 증시는 미-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 후퇴, 미 30년물 국채금리,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 급등 부담이 최근 단기 랠리를 연출한 마이크론(-6.9%), 샌디스크(-9.0%)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(다우 -0.2%, S&P500 -0.7%, 나스닥 -1.3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-5.0%).

7월말 이후 지난주까지 주요국 증시는 예상보다 선방했던 2분기 실적 시즌을 치르면서 신고가(미국), 회복(한국) 모멘텀을 만들었으나, 이번 주 들어서는 매크로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. 물론 고용, CPI 등 지표를 통해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기대감을 확보하기는 했음(FedWatch 9월 동결 확률 65%). 하지만 미-이란 협상 불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계심리가 잔존한 가운데,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(지난 18일 장중 5.33%대를 돌파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 기록) 등 선진국 장기 금리 상승이 증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.

최근 선진국 장기금리 급등은 장기채 공급 증가에 따른 듀레이션 부담 확대와 기간 프리미엄 상승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(ex: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채 보유 과정에서 감수하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. 듀레이션 부담 확대는 시장이 떠안아야 할 장기 금리 위험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)

달리 말해, 1) 주요국 정부의 재정적자 충당 목적용 국채 발행, 2) 빅테크 업체들의 AI 투자 목적용 회사채 조달은 증가하는 반면, 3) 중앙은행, 보험사 등 장기 자금 수요가 공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,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. 실제로 S&P Global에 의하면,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등 빅테크 기업의 올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은 2,250억달러로 약 970%(YoY)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(올해 총 4,000억 달러 예상).

AI 수익성 불안, 레버리지 청산 등 7월 폭락 국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크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이기에, 시장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. 일단 전일 다우, S&P500 등 전반적인 증시 조정 강도가 크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, 펀더멘털 훼손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안도요인. 그럼에도 미국 10년물, 30년물 금리, 테크업체 회사채 스프레드 등 관련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주중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비할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연휴기간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2%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, 이후 미-이란 MOU 연장 불확실성, 미국 등 선진국 장기금리 상승 부담 등이 장중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끝내 1% 넘는 급락 마감(코스피 -1.6%, 코스닥 -3.5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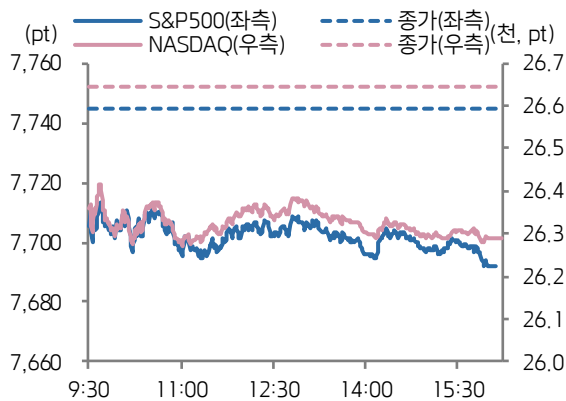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주요국 장기 금리 상승, 미국 반도체주 약세, 코스피200 야간선물 4%대 급락 여파 등으로 하락 출발할 전망이다. 다만, 금리발 증시 조정 압력은 전일 급락을 통해 기반영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, 장 중 낙폭을 만회해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

(다음페이지 계속)

동시에 금일 포함 추후 매크로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겠으나, 7월과 같은 비정상적인 수급 악화 및 증시 폭락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게 가져갈 필요. 당시에 비해 변동성의 절대 레벨이 낮아진 환경이기 때문.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비중이 7월 30%대에서 현재 5%대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나, 80~90pt를 넘나들었던 VKOSPI가 50pt대로 급락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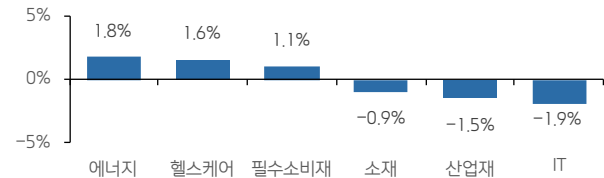
올 상반기 4~6월 중 미국 30년물 금리가 5.0%대를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였을 당시에는 코스피 선행 PER이 7배 초~중반을 기록했던 반면, 현재는 5.6배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도 눈 여겨볼 요인. 이전 금리 급등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, 금리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민감도는 상반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. 빅테크 업체들의 회사채 발행이 미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CAPEX 투자 용도였으며, 이들의 2분기 호실적을 통해 투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입증한 점도 펀더멘털상 증시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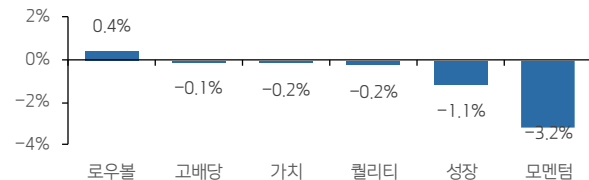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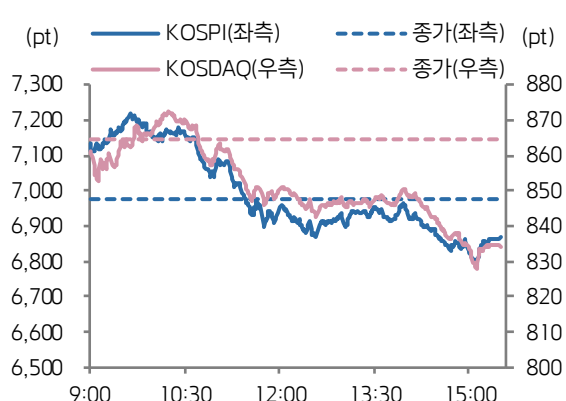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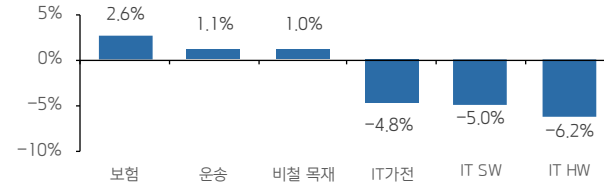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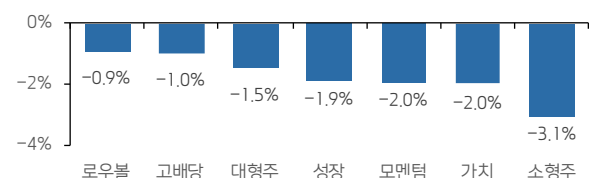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310.03	+1.45%	+14.35%	GM	83.71	-0.78%	+3.41%
마이크로소프트	481.63	+0.27%	+0.03%	일라이릴리	1,225.73	+3.6%	+14.61%
알파벳	344.20	+0.06%	+10.11%	월마트	115.20	+0.76%	+3.81%
메타	543.67	-4.45%	-17.49%	JP모건	363.25	+0.63%	+14.33%
아마존	259.45	-0.71%	+12.4%	엑손모빌	165.56	+2.54%	+40.34%
테슬라	336.87	-0.72%	-25.09%	세브론	205.74	+1.5%	+37.56%
엔비디아	219.74	-2.34%	+17.97%	제너럴일렉트릭	115.20	+0.8%	+3.8%
브로드컴	380.00	-3.17%	+10.2%	캐터필러	840.87	-4.63%	+47.68%
AMD	484.39	-4.27%	+126.18%	보잉	223.06	-1.28%	+2.74%
마이크론	940.76	-7.02%	+229.8%	넥스트에라	86.22	+0%	+8.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6,869.83	-1.55%	+63.02%	USD/KRW	1,410.80	-0.23%	-1.99%
코스피200	1,082.00	-1.47%	+78.55%	달러 지수	99.65	+0.02%	+1.35%
코스닥	834.20	-3.52%	-9.86%	EUR/USD	1.16	-0.03%	-1.45%
코스닥150	1,441.30	-3.65%	-6.85%	USD/CNH	6.75	+0.05%	-3.29%
S&P500	7,691.76	-0.69%	+12.36%	USD/JPY	159.61	+0.09%	+1.85%
NASDAQ	26,289.71	-1.33%	+13.11%	채권시장	가격	DTD(bp)	YTD(bp)
다우	53,343.40	-0.22%	+10.99%	국고채 3년	3.840	+4.5bp	+88.9bp
VIX	15.84	+4.28%	+5.95%	국고채 10년	4.373	+6.3bp	+98.8bp
러셀2000	3,017.89	-1.3%	+21.6%	미국 국채 2년	4.171	-0.4bp	+69.8bp
필라. 반도체	11,992.46	-4.98%	+69.31%	미국 국채 10년	4.706	-1.6bp	+53.9bp
다우 운송	21,495.23	-1.6%	+23.84%	미국 국채 30년	5.286	-2bp	+44.2bp
상해종합	3,990.30	+0.19%	+0.54%	독일 국채 10년	3.259	+3.8bp	+40.4bp
항셍 H	8,453.20	+0.16%	-5.17%	원자재 시장	가격	DTD(%)	YTD(%)
인도 SENSEX	77,235.46	-0.63%	-9.37%	WTI	84.94	+0.52%	+48.99%
유럽, ETFs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91.02	+0.17%	+49.58%
Eurostoxx50	6,468.17	-0.95%	+11.69%	금	4,420.60	-1.19%	-1.71%
MSCI 전세계 지수	1,147.95	-0.75%	+13.14%	은	64.04	-3.31%	-9.3%
MSCI DM 지수	5,007.93	-0.43%	+13.04%	구리	649.25	-1.87%	+14.26%
MSCI EM 지수	1,709.51	+0.49%	+21.73%	BDI	2,878.00	+0.52%	+53.33%
MSCI 한국 ETF	170.05	-8.13%	+74.91%	옥수수	488.00	-0.31%	+5.97%
디지털화폐	가격	DTD(%)	YTD(%)	밀	681.25	-1.16%	+20.63%
비트코인	64,551.64	+0.31%	-26.35%	대두	1,216.75	+0.06%	+14.3%
이더리움	1,912.03	+0.36%	-35.79%	커피	332.45	+4.58%	+5.6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8월 1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